

第36回 全國民俗藝術競演大會

광명농악



경 기 도

● 때·곳 : 1995.10.11~10.13일까지 ● 공주공설운동장

유래

농

약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기록된 문헌은 없으나 한민족이 한반도에 정착하며 농경생활을 시작한 시기라고 추측된다.

광명농악은 450여년전부터 광명시 소하동과 학온동 지역에서 면면히 전승되어 내려오는 민속놀이로서 농악의 가락은 길군 악, 칠채, 덩더궁이 짠지패가락, 자진마치 이채가락을 많이 쓰며 무등놀이가 발달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박진감있게 구성되어 있다.

특히 김매기, 논매기, 모심기등의 일을 할 때 협동심을 갖게 하며 피로를 덜어줌으로서 일의 능률을 올리려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추측되며 추석, 단오, 정월대보름등의 명절때에는 마을의 평안과 풍년을 기원하였다.

남녀 노소를 불문하고 한가구에 한명씩 놀이패에 참가하여 흰 바지 저고리에 더거리나 패자를 입고 어깨에는 빨강, 파랑, 노랑색의 삼색띠와 머리에 고깔 또는 상모(전립)을 쓰고 마을 전체를 돌면서 풍물을 치고 놀았다 이때에 주민들은 잡귀를 제거한다는 뜻으로 가정의 지신을 밟아달라고 부탁하였으며 풍물패의 흥을 돋우기 위하여 금전이나 곡식등을 주므로서 마을의 축제분위기를 고조시켰다.

그러나 행정구역이 몇번씩 바뀌고 마을 형태도 산업의 발달로 점차 도시화 되면서 농악놀이가 점점 쇠퇴되어 가고 있는 이때 광명농악을 재조명하므로서 전통 민속놀이로서 계승 발전시키고자 한다.

광명농악의 특징과 의의

경 기농악은 경기도를 비롯하여 충청도 그리고 강원도 일부지방에 전승되고 있는 농악으로 멀리 황해도까지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경기농악은 엄밀히 구분하여 남부지역 농악과 북부지역 농악으로 구분할 수 있겠다.

남북의 농악이 대체로 흡사하지만 평야가 많은 남부와 산악이 많은 북부 농악의 차이는 조금 다른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광명의 소하리 풍물놀이는 경기농악의 중심적인 가락과 짜임새가 모두 담겨 있으며 특히 무등놀이는 가히 일품이라 하겠다. 복새는 기본적으로 흰옷차림에 삼색띠를 두르거나 마을에 따라 청색조끼를 착용하기도 한다.

쇠가락은 길군악 칠채, 덩더궁이(삼채), 짠지패가락, 두마치(자진마치), 썩썩이, 굿거리등이 쓰이는데 특히 길군악 칠채는 경기농악에서만 쓰이는 가락이다.

광명농악의 형식에 있어서 특이한 것은 판굿의 짜임새가 다양하고 피조리·새미의 깨끼춤과 동리삼동, 곡마당등 다양한 무등타기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민속놀이 가운데 세시명절과 관련된 놀이가 대체로 빈약한 편인데 광명 소하풍물놀이는 이를 메워주는 놀이라는 점에서 그 가치가 있다하겠다.

광명농악놀이 순서

1. 내돌림법구
 1. 당산벌림
 1. 당산 돌림 법구
 1. 고사리 깍기
 1. 피조리 놀이
 1. 쌍줄백이
 1. 절구대놀이
 1. 외돌림 법구
 1. 길군악 칠채
 1. 외돌림 법구
 1. 가세벌림
 1. 사통맥이
 1. 원 좌우치기
 1. 네줄백이 좌우치기
 1. 쩍쩝이
 1. 굿거리
 1. 상공놀이
 1. 법구놀이
 1. 무등놀이
 1. 열두발 놀이
 1. 도둑잽이

해 설

1. 돌림법구

덩더궁이 가락으로 시작하여 두마치 가락으로 맺는 굿으로 풍물꾼이 밖에서 원을 만들고 안에는 소고잽이가 놀이를 벌이는데 소고잽이의 허공잽이가 일품이다. 양쪽으로 놀이를 하기 때문에 가락에 특히 신경을 써야하는 놀이다.



2. 당산벌림

당산벌림은 일자로 길게 서서 ㄷ형으로 벌려선다. 상쇠가 혼자 중앙에 나와서 잠시 상쇠놀이를 하기도 하며 쇠놀이가 끝나면 법구잽이를 불러들여 법구놀이가 다양하게 펼쳐지며 법구놀이가 끝나면 잡색을 불러 같이 놀아주고 명석말이로써 놀이의 끝을 맺는다. 이때의 가락은 덩더궁이와 두마치 가락을 친다.



3. 오방진(칠채)

동서남북 중앙 다섯마당으로 펼쳐지는 놀이로써 가락은 칠채가락을 쓰며 중앙에서 놀이가 이어질때는 육체(동이삼채)가락으로 넘기고 다시 자진마치를 연결하여 두마치로 맺는 놀이로써 벽구잽이의 자반뒤집기가 일품이다.



4. 가세벌림

덩더궁이(삼채)가락을 치며 상쇠가 원을 풀고 나오면 뒤따르는 풍물잽이들이 두 줄로 서서 풀어져 나와 양쪽으로 갈라서게 되는데 이때에 벽구잽이와 잡색이 또 다른 양쪽으로 서게되며 상쇠가 가락을 넘기면서 서로 엇갈리는 놀이를 말한다.



5. 사통 맥이

가새벌림이 끝나면 사방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원을 만들어 놀이를 벌이며 중앙에서 명석말이를 꼽으로 맷는 놀이로써 가락은 덩더궁이와 두마치를 친다.



6. 좌우 치기

자진덩더궁이 가락을 치며 양 좌우치기를 한다. 갹개개 갹그라개개 개깟개개 갹그라개개 하는 상쇠의 쇠가락에 맞추어서 좌우 전후 3보를 한다.



7. 쪽 쪽 이

상쇠가 쪽쪽이 가락을 치면 풍물잽이와 법구등 모두 따라서 갠지개 갠지개 개개하고 허리를 굽혀 춤을 추는 놀이로써 쪽쪽이가 끝나면 굿거리 가락을 조금 치는데 이때에는 쇠가락이 전라도 가락처럼 원박을 많이 치지않고 잔가락을 많이 쓰는 것이 특이하며 굿거리가 끝나면 멍석말이로 들어가 덩더궁이 두마치 가락으로 모든 판굿을 마치게 된다.



8. 무 등 놀 이

모든 판굿을 마치게되면 상쇠놀이, 법구놀이, 열두발등 각 개인의 놀이가 이어지며 마지막으로 무등놀이가 모든 굿의 대미를 장식하는데 특히 무등놀이의 어린무등 들이 추는 깨끼춤과 동리, 삼동, 곡마당, 논고리, 맞동리와 같은 다양한 무등타기가 이어지면 맨 마지막으로 하나의 원을 만들어 인사굿을 치면 모든 놀이가 끝나게 된다.



출연자명단

구분	성명			구분	성명			구분	성명		
상공	정철기	홍은채	이종배	북	김기범	김광형	김수균	피조리	오미순	조보름	윤은정
	김영숙	김영규	김재현		김소동	김재성	김원연		김수희	김정희	김정란
	정재국	최성훈	김동일		박손이	김동성	김연욱		김혜주	김주희	김정희
	김정탁	이진우	송양일		김노인	김석성	김봉동		정서정	정주정	정아
	김동정	이진육	강양일		김노영	김성진	김남재		미색반	미양반	미권정찬
	김성진	송양일	구형일		김박오	김진친	김환현		색포수	색구경도	색김용현
	김형은	강형서	구형서		김강일	김현일	김현범		이김이	이김정호	이김용훈
	김은만	구정원	김정원		김박박	김박남	김기언		김가한	김상호	김성현
	김정금	김연숙	김연희		김변권	김동오	김조성		김유조	김유경	김규삼
	김연은	김은희	김정숙		김이안	김해안	김훈천		유최이	유인영	유필원
장구	정재민	최정우	정대윤	소고	김유박	김홍이	김성진	기수	김이기	김유기	김정호
	유민성	최정우	성채윤		김박홍	김진이	김백수		이손박	이이	이성덕
	김민대	김재윤	김대윤		김장영	김장보	김백지		박근	박이	박원근
	박은준	박진우	박준학		김장영	김보지	김종미				
	이준우	이진우	이준우		김미애	김애현					
	김승목	김승현	김정현								
	김정경	김정현									
북				피조리				태평소			

수고하신 분들

고증 : 유인필 (74세, 현 주민)

구형서 (75세, 현 주민)

김석남 (75세, 현 주민)

구봉회 (광명농악 보존회 회장)

지도 : 이춘목, 임백규

연출 : 임웅수 (우리음악연구소 원장)

기획 : 권정찬

출연자명단

구분	성명	구분	성명	구분	성명
상공	정철기	북	김기범	피조리	오미순
	홍은채		김광형		조보름
	이종배		김재수		윤정은
	김영숙		박동균		김정수
	이영규		손성원		조희정
	정재현		이동연		주혜정
	최국성		김동우		주란희
	김동훈		노봉인		정주아
	박정일		김영봉		정정찬
	이진욱		김석동		양반권
정	송기양	소고	박성재	세미색	포수구경도
	강성일		오진환		색시김용현
	구형서		김현현		구용육
	이은숙		강범기		이정호
	신만종		박기언		김수성
	김정원		박언조		가현기
	이금숙		변동오		한상규
	채연희		권해성		유조삼
	심은희		이안준		유조인
	정혜숙		유종현		유인필
장구	김재은	피조리	박탁천	기수	유최인
	유민박		유남모		유영지
	이성채		홍기남		이영기
	김대윤		이진남		손성원
	박은우		김백기		박덕근
	이준학		장영엽		
	김진우		장보영		
	이승묵		김지희		
	김정현		김종애		
			이미현		
북				태평소	